

30. 의견 표현하기

30강에서는...

- 1) ว่า(와-)를 이용한 의견 표현에 대해 알아봅시다.
- 2) 동의와 부동의의 의견 표현에 대해 알아봅시다.
- 3) 화제 전환의 접속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열대과일

1. ว่า(와-)를 이용한 의견 표현

คิด	คิด	생각하다
เห็น	เห็น	보다
เชื่อ	เชื่อ-า	믿다
เชื่อมั่น	เชื่อ-า มาก	확신하다
ได้ยิน	ได้ยิน	듣다
ว่า	ว่า-	~라고

ดิฉันคิดว่า มะม่วงของไทยอร่อยที่สุดในโลก

(ดิฉัน คิด ว่า-, มะม่วง-양 커-ㅇ 타이 아려-이 티- 솟 나이 로-ㅏ)

: 저는 태국의 망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EBS 초급 태국어]

ผมเห็นด้วยครับ มะม่วงของไทยอร่อยจริง ๆ

(폼 헨 두-아이 크랍, 마무-앙 커-ㅇ 타이 아려-이 찡찡)

: 저도 동의해요, 태국의 망고는 정말 맛있어요.

ผมได้ยืมว่า 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นำเข้ามะม่วง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

(폼 다이 인 와-, 까올리- 남 카오 마무-앙 마- 짜-ㄱ 뿌라테-ㅅ 타이)

: 저는 한국이 태국으로부터 망고를 수입한다고 들었어요.

ใช้ค่ะ มะม่วงนำเข้าลูกใหญ่โต หอมและหวานด้วยค่ะ

(차이 카, 마무-앙 남 카오 루-ㄱ 야이 또- 허-ㅁ 래 와-ㄴ 두-아이 카)

: 맞아요, 수입 망고는 과실이 크고, 향이 좋고 달기도 해요.

ดิฉันเชื่อมั่นว่า คนเกาหลีทุกคนจะชอบ

(디찬 츠-아 만 와-, 콘 까올리- 툅 콘 짜 처-ㅅ)

: 저는 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ผมก็เชื่อว่า คงเป็นเช่นนั้นครับ

(폼 꺼- 츠-아 와- 공 뽀 첸 난 나 크랍)

: 저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2. 동의와 부동의 의사 표현

ตกลง	똥롱	동의하다, 승낙하다
โอเค	오-케-	O.K., 동의하다

[EBS 초급 태국어]

เห็นด้วย	헨 두-아이	동의하다, 찬성하다
ไม่เห็นด้วย	마이 헨 두-아이	부동의하다, 찬성하지 않다.
ประท้วง	쁘라투-앙	데모하다, 시위하다, 항의하다
ต่อต้าน	떼-따-ล	저항하다, 대항하다

ปอนด์ ตกลงวันนี้จะไปเดินเล่นสยาม ใช้ไหมคะ

(빠-ล 독룽 완니- 짜 빠이 드-이-ล 렌 싸야-ㅇ 차이 마이 카)

: 뻘, 오늘 싸얌에 놀러가기로 동의한 거 맞죠?

ใช้ครับ มีอะไรหรือเปล่า

(차이 크랍, 미- 아라이 르- 뽀라오)

: 맞아요, 무슨 일 있나요?

ดิฉันได้ยินว่า แถวนั้นมีการเดินประท้วง

(디찬 дай 인 와-, 태-우 난 미- 칸 드-이-ล 뿌라투-앙)

: 저는 그 부근에 시위 행진이 있다고 들었어요.

คิดว่าคงรถติดมาก ไว้วันหลังดีกว่าไหมคะ

(kit 와- 쿡 롯 락 마-ㅇ, 와이 완 랑 디- 께- 마이 카)

: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다음에 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ผมเห็นด้วยครับ ถ้ารถติดมาก ไม่ไปดีกว่าครับ

(폼 헨 두-아이 크랍, 타- 롯 락 마-ㅇ 마이 빠이 디- 께- 크랍)

: 저도 동의해요. 만약 차가 많이 막히면, 안 가는 것이 낫겠어요.

[EBS 초급 태국어]

ว่าแต่ ประท้วงกันเพราะอะไรครับ

(와- 때-, 뿌라투-앙 칸 프러 아라이 크랍)

: 그런데, 무슨 일로 시위를 하나요?

เพราะไม่เห็นด้วยกับรัฐบาลค่ะ เป็นกลุ่มต่อต้านรัฐบาลค่ะ

(프러 마이 헨 두-아이 갑 랏타바-ㄴ 카, 뽀 끌룸 떠-따-ㄴ 랏타바-ㄴ 카)

: 정부에 동의하지 않아서 예요. 정부에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3. 화제 전환의 접속사

และ	래	그리고,
แล้วก็	래-우 꺼-	그리고, 그리고 나서
จึง	쫘	[문어/반구어] 그래서 *주어 뒤에 위치
เลย	르-이	[구어] 그래서 *주어 뒤에 위치
แต่	때-	그러나, 그런데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야-ㅇ 라이 꺼- 따-ㅇ	어쨌든, 어찌되었든
ว่าแต่	와- 때-	그건 그렇고

ผลไม้อร่อยมากครับ

(폰라마이 니- 아려-이 마-ㄱ 크랍)

: 이 과일은 아주 맛있네요.

[EBS 초급 태국어]

อร่อยมากใช้ไหมคะ ผลไม้้นำเข้ามาจากไทยค่ะ

(아래-이 마-ㄱ 차이 마이 카, 폰라마이 남 카오 마- 짜-ㄱ 타이 카)

: 아주 맛있죠? 태국에서 수입한 과일이에요.

ว่าแต่ผลไม้นี้เรียกว่า อะไรครับ

(와- 때-, 폰라마이 니- 리-악 와- 아라이 크랍)

: 그런데, 이 과일은 뭐라고 부르나요?

เรียกว่าทุเรียนค่ะ คนก็เรียกกันว่าราชาแห่งผลไม้ค่ะ

(리-악 와- 투리-안 카, 쿤 까- 리-악 칸 와- 라-차- 해-ㅇ 폰라마이 카)

: ‘두리안’ 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과일의 왕이라고도 하죠.

ที่จริงคำว่า “ทุเรียน” เป็นภาษาอินโดนีเซียค่ะ

(티- 찡 캄 와- ‘투리-안’ 뽀 파-싸- 인도-니-씨-아 카)

: 사실 ‘두리안’이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ผลไม้ไทยอร่อยจริง ๆ ครับ

(야-ㅇ라이 까- 따-ㅁ 폰라마이 타이 아래-이 찡찡 크랍)

: 어쨌든 태국의 과일은 정말 맛있네요.

4. 대화: 의견 표현하기

น้ำ: ดิฉันคิดว่า มะม่วงของไทยอร่อยที่สุดในโลก

[EBS 초급 태국어]

(나-ㅁ) (디찬 킷 와-, 마무-앙 커-ㅇ 타이 아려-이 티- 쏷 나이 로-ㄱ)
: 저는 태국의 망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ปอนด์: ผมเห็นด้วยครับ มะม่วงของไทยอร่อยจริง ๆ

(빠-ㄴ) (폼 헨 두-아이 크랍, 마무-앙 커-ㅇ 타이 아려-이 찡찡)
: 저도 동의해요, 태국의 망고는 정말 맛있어요.

ว่าแต่ผลไม้ี้เรียกว่า อะไรครับ

(와- 때-, 폰라마이 니- 리-악 와- 아라이 크랍)
: 그런데, 이 과일은 뭐라고 부르나요?

น้ำ: อร่อยมากใช้ไหมคะ ผลไม้้นำเข้ามาจากไทยค่ะ

(나-ㅁ) (아려-이 마-ㄱ 차이 마이 카, 폰라마이 남 카오 마- 짜-ㄱ 타이 카)
: 아주 맛있죠? 태국에서 수입한 과일이에요.

เรียกว่าทุเรียนค่ะ คนก็เรียกกันว่าราชาแห่งผลไม้ค่ะ

(나-ㅁ) (리-악 와- 투리-안 카, 콘 껀- 리-악 칸 와- 라-차- 해-ㅇ 폰라마이 카)
: '두리안' 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과일의 왕이라고도 하죠.

ที่จริงคำว่า “ทุเรียน” เป็นภาษาอินโดนีเซียค่ะ

(나-ㅁ) (티- 찡 캄 와- '투리-안' 뽀 파-싸- 인도-니-씨-아 카)
: 사실 '두리안'이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EBS 초급 태국어]

ปอนด์: อยากรู้ก็ตาม ผลไม้ไทยอร่อยจริง ๆ ครับ

(빠-ㄴ) (야-ㅇ라이 꺼- 따-ㅁ 폰라마이 타이 아려-이 찡찡 크랍)

: 어쨌든 태국의 과일은 정말 맛있네요.

น้ำ: ดิฉันเชื่อมั่นว่า คนเกาหลีทุกคนจะชอบผลไม้ไทย

(나-ㅁ) (디찬 츠-아 만 와-, 콘 까울라- 툅 콘 짜 처-ㅂ 폰라마이 타이)

: 저는 한국 사람 모두가 태국 과일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ปอนด์: ผมเห็นด้วยครับ ผลไม้ไทยอร่อยจริง ๆ

(빠-ㄴ) (폼 헨 두-아이 크랍, 폰라마이 타이 아려-이 찡찡)

: 저도 동의해요, 태국의 과일은 정말 맛있어요.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저는 태국의 망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 저도 동의해요, 태국의 망고는 정말 맛있어요.

- 저는 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 저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다음에 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 저도 동의해요. 만약 차가 많이 막히면, 안 가는 것이 낫겠어요.

- 그런데, 이 과일은 뭐라고 부르나요?
- 어쨌든 태국의 과일은 정말 맛있네요.

<태국의 과일>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ผลไม้ไทย.jpg>)

태국은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태국의 열대과일은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가시가 돋힌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달고 부드러운 과육을 숨기고 있다. 다만 향이 워낙 강해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이다. 태국에서의 두리안은 생과일 자체로도 즐기지만, 아이스크림, 두리안 칩, 설탕에 고은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생과일로 두리안을 즐기게 된다면, 두리안이 신체에 열을 올리고 가스를 차게 하므로 술이나 탄산음료와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과일은 망고스틴이다.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과는 다르게 한 손에 들어 올만큼 작고 양증맞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껍질을 비틀어 열면 안에 마늘과 비슷한 형태의 과육이 자리잡고 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과는 다르게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두리안을 먹은 후에 망고스틴으로 마무리 하면 신체의 열을 평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태국의 과일들도 계절별로 나는 시기가 있는데, 1~2월에는 바나나, 수박, 포도 등이 나고, 3월에는 망고와 람부탄이, 4월에는 두리안과 망고스틴이 제철이다. 5~6월에는 파인애플과 용안이 나고, 7~8월에는 커스타드 애플과 포멜로가 재배되고, 9~10월에는 잭프룻과 란사트가 난다. 11~12월에는 파파야, 로즈애플 등이 제철이다. 태국의 계절별 과일을 맛보는 것도 태국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